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4.07.05 / 제5호

## MATCH PREVIEW

전역자들 떠나보내는 김천 상대하는 인천,  
이번엔 무승부 아닌 승리가 필요하다

두 달만에 응원석 개방하는 홈 경기,  
수원FC 상대로 설욕에 나선다

다시 홈에서 서울과 맞붙는 인천,  
올해 첫 인경전 승리를 위해 달린다

## BLUEMAN INTERVIEW

‘항저우 AG 금메달리스트’ 민성준  
“꾸준함 유지하며 든든한 모습 보이고 싶다”

## ROOKIE INTERVIEW

다재다능 수비수 김건희,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더 뒤통에 만드는 원동력이다

## IUFC REPORTER REPORT

‘전기리그 준우승’ 인천 대건고의  
전반기 여정 되짚어보기



제5호 THE UNITED / 발행일 2024년 07월 05일 / 등록번호 영등포라00591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단 / 디자인 인쇄소 발행소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축협팩카드빌딩 22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 INCHEON UNITED 2024 SQUAD

**황근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진도형**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조성환** 감독  
HEAD COACH

**변재섭** 수석코치  
COACH

**박용호** 코치  
COACH

**김재성** 코치  
COACH

**김광석** 코치  
COACH

**김이섭** GK코치  
GK COACH

**오지우**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김종민** 전력분석관  
PERFORMANCE ANALYST

**표석환** 통역  
INTERPRETER

**김한운** 스카우트  
SCOUT

**1 민성준**  
GOAL KEEPER

**25 이범수**  
GOAL KEEPER

**29 김유성**  
GOAL KEEPER

**31 성윤수**  
GOAL KEEPER

**2 김건희**  
DEFENDER

**3 김연수**  
DEFENDER

**4 오반석**  
DEFENDER

**13 최승구**  
DEFENDER

**14 최우진**  
DEFENDER

**15 임형진**  
DEFENDER

**17 김준엽**  
DEFENDER

**20 델브리지**  
DEFENDER

**23 정동운**  
DEFENDER

**26 김성민**  
DEFENDER

**28 민경현**  
DEFENDER

**37 홍시후**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55 권한진**  
DEFENDER

**82 요니치**  
DEFEND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희**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16 이가람**  
MIDFIELDER

**30 김훈**  
MIDFIELDER

**32 강도욱**  
MIDFIELDER

**33 김현서**  
MIDFIELDER

**38 박진홍**  
MIDFIELDER

**40 음포쿠**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1 제르소**  
FORWARD

**19 송시우**  
FORWARD

**21 백민규**  
FORWARD

**22 지연학**  
FORWARD

**24 김민석**  
FORWARD

**27 김보섭**  
FORWARD

**34 하동선**  
FORWARD

**66 김세훈**  
FORWARD

**77 박승호**  
FORWARD

**88 이종욱**  
FORWARD



## INCHEON UNITED 2024 SCHEDULE

01R	03월 02일(토) 16:30	0	인천 : 수원FC	1	인천축구전용
02R	03월 10일(일) 16:00	0	서울 : 인천	0	서울월드컵
03R	03월 17일(일) 16:30	3	울산 : 인천	3	울산문수축구
04R	03월 30일(토) 14:00	2	인천 : 대전	0	인천축구전용
05R	04월 03일(수) 19:30	2	광주 : 인천	3	광주축구전용
06R	04월 06일(토) 16:30	0	인천 : 제주	1	인천축구전용
07R	04월 14일(일) 16:30	1	인천 : 대구	1	인천축구전용
08R	04월 17일(수) 19:00	1	인천 : 김해시청	0	인천축구전용
09R	04월 21일(일) 14:00	4	강원 : 인천	1	춘천송암
10R	04월 28일(일) 14:00	0	포항 : 인천	0	포항스틸야드
11R	05월 05일(일) 16:30	2	김천 : 인천	2	김천종합
12R	05월 11일(토) 16:30	1	인천 : 서울	2	인천축구전용
13R	05월 18일(토) 16:30	0	대전 : 인천	1	대전월드컵
14R	05월 25일(토) 19:00	1	인천 : 광주	1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9일(수) 19:30	1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01일(토) 19:00	3	수원FC : 인천	1	수원종합
17R	06월 16일(일) 18:00	2	전북 : 인천	2	전주월드컵
18R	06월 19일(수) 19:00	0	인천 : 김천	0	인천축구전용
19R	06월 23일(일) 18:00	1	인천 : 포항	3	인천축구전용
20R	06월 26일(수) 19:30	1	제주 : 인천	0	제주월드컵
21R	06월 30일(일) 19:00	0	인천 : 강원	1	인천축구전용
22R	07월 05일(금) 19:30		인천 : 김천		DGB대구은행파크
23R	07월 09일(화) 19:30		대구 : 인천		DGB대구은행파크
24R	07월 14일(토) 19:00		광주 : 인천		광주축구전용
25R	07월 17일(수) 19:00		울산 : 인천		울산문수축구
26R	07월 21일(일) 19:00		인천 : 수원FC		인천축구전용
27R	07월 27일(토) 19:30		인천 : 서울		인천축구전용
28R	08월 10일(토) 19:30		제주 : 인천		제주월드컵
29R	08월 17일(토) 19:30		대전 : 인천		대전월드컵
30R	08월 24일(토) 19:30		인천 : 전북		인천축구전용
31R	08월 31일(토) 19:30		대구 : 인천		DGB대구은행파크
32R	09월 15일(일) 16:30		김천 : 인천		김천종합
33R	09월 22일(일) 19:00		인천 : 울산		인천축구전용
34R	09월 27일(금) 19:30		포항 : 인천		포항스틸야드
35R	10월 06일(일) 15:0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코리아컵 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GIMCHEON PREVIEW

## 전역자들을 떠나보내는 김천 상대하는 인천, 이번엔 무승부 아닌 승리가 필요하다

글 = 이환희 UTD기자 (hwanhee515@naver.com)

인천이 홈에서 7월 일정을 시작한다.

인천유나이티드는 7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 1 2024' 21라운드 경기에서 김천상무를 상대한다.

코리아컵까지 포함하면 올해 김천을 상대하는 세 번째 경기다. 원정경기였던 5월 5일 K리그 11라운드 경기에서는 2-2로 비겼다. 두 골을 먼저 실점한 이후 패색이 짙었지만 무고사와 제르소가 한 골씩 넣으며 패배를 면했다. 먼 거리를 이동한 피로에 더해 비까지 왔던 힘든 경기에서 얻은 귀중한 승점 1점이었다. 최근에 맞붙었던 6월 19일 코리아컵 16강은 홈경기였다. 조성환 감독은 컵 대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로 주전급 선수들을 선발 기용했다. 김천은 이 경기에서 이동경, 김승섭 등 새로 입단한 신병 선수들이 대거 선발 출전했다. 두 팀의 조직력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천의 경기는 잘 풀리지 않았다. 김보섭이 왼쪽에서 드리블과 빠른 속도를 이용해 만들었던 몇 번의 기회 말고는 득점이 나올 만한 장면이 부족했다. 김천의 신병 선수들은 역시 아직 호흡이 잘 맞지 않았다. 연장전까지 120분을 보내고도 0-0으로 끝났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는 인천의 골키퍼 이범수가 5개 중 2개의 슈팅을 막아냈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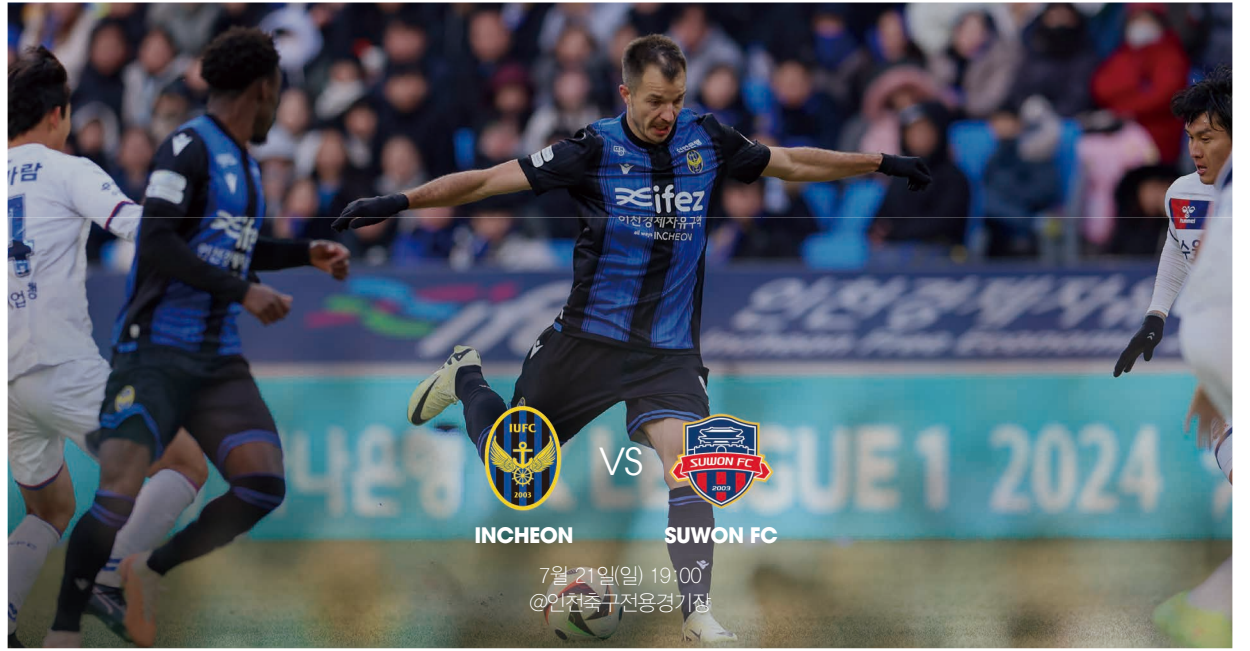
올해도 김천에게 힘든 여름이 시작됐다. 원주재, 김진규 등 7기 병장들이 곧 전역한다. 리그에서 상위권인 올해 김천의 성적은 7기 선수들을 주축으로 이뤄냈다. 경기가 열리는 날이 전역까지 1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출전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정정용 감독은 이제 새로운 선수 조합을 찾아야 한

다. 빠르게 적절한 조합을 찾지 못한다면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인천은 아직 적응기에 있는 상대의 약점을 공략해야 한다. 임대 전 소속팀에서 주전급으로 활약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개인 기량은 훌륭하다고 해도 비싼 환경과 새로운 동료들에 적응하는 건 다른 문제다. 축구에서는 뛰어난 개인의 힘보다 서로를 잘 아는 11명이 뭉친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인천이다. 지난 코리아컵 16강에서 그런 힘을 보여줘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번에는 상대보다 완성된 조직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작된 좋지 않은 흐름을 끊어낼 기회다.

이 경기 이후 인천은 3경기 연속으로 지방 원정경기를 떠난다. 무더운 날씨 속 원정 3연전을 버텨내기 위해 익숙한 경기장에서 치르는 경기의 이점을 살려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 무승부가 유독 많은 올해 인천이다. 아쉬운 승점 1점도 있었고 승리처럼 느껴졌던 귀중한 승점 1점도 있었다. 김천에게도 90분 경기를 기준으로 2전 2무를 기록 중이다.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아닌 승리가 절실하다.

인천의 김천 상대 K리그 통산 전적은 2승 1무 1패다. 전산 상주상무와의 경기까지 포함하면 13승 8무 10패다. 상무 선수단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기록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특성을 가진 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아예 의미 없는 기록은 아니다. 상무 팀을 상대로 패배보다는 승리의 기억이 많았던 인천이 홈 팬들 앞에서 반동을 노린다.



vs SUWON FC PREVIEW

## 두 달만에 응원석 개방하는 홈 경기, 수원FC 상대로 설욕에 나선다

글 = 이환희 UTD기자 (hwanhee515@naver.com)

원정 3연전을 마친 인천이 홈으로 돌아와서 수원FC를 상대한다.

인천유나이티드가 7월 21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 1 2024' 2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인천이 올해 개막전의 상대와 다시 겨룬다. 파이널 라운드로 돌입하기 전에 수원FC와 치르는 마지막 경기다. 15,000명이 넘는 관중이 모였던 개막전에서 인천은 좋은 경기를 했지만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헌납하며 0-1로 패배했다. 수원FC 김은중 감독의 프로 클럽팀 감독 데뷔전이었다. 인천에서 5번째 시즌을 맞이한 조성환 감독과 첫 경기를 치르는 감독의 대결이었다. 예상대로 조직력에서 앞서는 인천이 경기를 주도했다. 인천과 수원FC의 슈팅 수는 10-4였고 유효 슈팅 수는 7-1이었다. 볼 점유율에서도 인천이 55%로 더 높았다. 경기 내용과 달리 결과가 따르지 않았다.

두 번째 맞대결은 6월 1일에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16라운드 원정경기였다. 결과는 1-3으로 인천의 패배였다. 석 달이 지나 다시 만난 두 팀의 경기 양상은 1라운드와는 달랐다. 경기 초반까지는 탐색전이 이어졌으나 전반 26분 이승우의 선제골과 전반 48분 정승원의 추가골로 전반전에 이미 0-2로 끌려갔다. 개막전과는 달리 수원FC는 인천의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역습으로 이어갔다. 조성환 감독은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 전반전에 두 명을 교체했다. 후반전에 두 명을 더 교체한 이후 후반 20분 무고사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추격했다. 동점골을 위해 노력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수비진의 실수로 추가 실점하며 경기가 종료됐다.

인천이 경계해야 할 수원FC의 핵심은 공격을 이끄는 이승우와 안데르손이다. 포르투갈 리그에서도 팀 동료였던 두 선수는 체격이 크지는 않지만 골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다. 많은 공격 포인트를 합작하며 팀을 리그 상위권으로 올렸다. 경기를 치르면서 둘의 공격 시너지가 발전하고 있다. 인천은 이 두 공격수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번에도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이승우와 안데르손 외에도 빠른 선수들이 많다. 속도를 이용한 역습이 무기인 상대이기 때문에 인천의 수비진도 주력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시즌에는 수원FC에게 1승 2무로 한 번의 패배도 없었던 인천이지만 올해는 2번의 경기에서 모두 졌다. 그로 인해 최근 10경기에서의 전적도 1승 6무 3패로 열세다. 수원FC는 감독도 바뀌었고 선수단도 크게 바뀌었다. 겨울 이적시장에서 27명을 내보내고 19명을 영입했다. 순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작년과 완전히 다른 팀이다. 실점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않다. 같은 상대에게 세 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년이 아닌 올해의 수원FC를 잘 분석해야 한다.

대구-광주-울산 원정을 마친 인천 선수단이 16일 만에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다. 동시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S석이 다시 열린다. 인천 팬들의 뜨겁고 성숙한 응원을 등에 업은 선수들이 지난 두 번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달린다.





vs SEOUL PREVIEW

## 다시 홈에서 서울과 맞붙는 인천, 올해 첫 인경전 승리를 위해 달린다

글 = 이환희 UTD기자 (hwanhee515@naver.com)

인천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대지만 올해 아직 이기지 못한 서울과의 홈 경기를 치른다.

인천유나이티드가 7월 27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FC 서울과 '하나는행 K리그 1 2024' 25라운드 경기에 나선다.

파이널 라운드로 돌입하기 전 마지막 인경전이다. 인천은 올해 아직 서울에게 이기지 못했다. 처음 맞붙었던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의 2라운드 원정경기는 0-0으로 비겼다. 5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몰린 경기에서 인천은 당당히 서울에 맞섰다. 슈팅 수 17-4, 유효 슈팅 수 7-1로 홈팀보다 좋은 경기를 했다. 점유율은 내주더라도 단단한 수비 태세를 갖춘 채 효율적인 공격을 펼쳤다. 조성한 감독 아래 인천이 잘해왔던 전술이었다. 골 결정력이 더 좋았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경기였다.

두 번째 맞대결이었던 12라운드는 5월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렸다. 결과는 역전패였다. 이날 전반전까지 인천은 경기력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경기력은 득점으로도 이어졌다. 전반 36분 코너킥에서 최우진과 무고사가 득점을 합작했다. 전반 추가 시간에 큰 약재가 발생했다. 서울의 최준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격분했던 제르소가 레드카드를 받았다. 남은 후반전을 통째로 한 명이 부족한 채로 뛰어야 했다. 인천은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 3분과 후반 17분에 동점골과 역전골을 헌납했다. 남은 시간 인천은 골대를 맞히는 슈팅을 가져가는 등 공격을 이어갔지만 동점골을 넣지 못하고 1-2로 패배했다.

인천의 조성한 감독과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추구하는 축구 색깔이 다르다. 조성한 감독은 공을 점유하는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수비에 집중하다가 상대의 실수를 노리는 역습을 선호한다. 김기동 감독은 공을 점유하는 전술을 사용한다. 서울에 와서는 시즌이 절반이 지난 시점까지 봤을 때 포항 감독 시절만큼의 임팩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인천은 서울 선수들이 지공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최대한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의 수비 집중력이 필요한 경기다.

누구보다 이 경기를 기다렸을 선수가 있다. 인천의 에이스 제르소다. 지난 인경전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퇴장에 대한 공개 사과를 했다. 그 경기의 패배와 퇴장 징계로 이후 2경기를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것에 죄책감을 느꼈던 제르소다. 6월 16일 17라운드 전북 원정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7월 중순에서 7월 말에는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경기장에서 서울을 상대하는 제르소의 발끝을 기대해 볼 만하다.

두 달 만에 홈경기장에서 서울을 상대하는 인천 선수들의 각오는 전보다 더 결연하다. 라이벌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팀의 사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조성한 감독 부임 이후 인천은 서울에게 열세였던 시즌이 없다. 가장 최근 12라운드의 패배는 뼈아팠지만 지난 몇 시즌 간 서울에게 강했다. 팀이 위태로웠던 2020시즌에도 조성한 감독은 중도 부임 이후 서울에게 2전 2승을 거뒀다. 인천은 지난 인경전의 전반전 경기력을 다시 보여야 한다. 다음 26라운드 제주전까지는 2주의 간격이 있다. 경기 결과에 따라 2주 동안 이어질 팀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다.



## 항저우 AG 금메달리스트 민성준 꾸준함 유지하며 든든한 모습 보이고 싶다

글 = 지문호 UTD기자 (jimh2001102@naver.com)





2020년, '광성중-대건고'를 거친 한 골키퍼가 인천에 입단했다. 입단 직후, 그는 2년간 일본 J2리그의 몬테디오 야마가타로 임대를 떠났다. 그러나 여러 악재가 겹치며, 일본에서의 2년 임대 기간 동안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단단해진 채로 인천에 돌아왔다. 끝내 2022년 리그 최강전, 전북전에 처음으로 피치 위를 밟게 된다. 비록 경기 결과는 1-2 패배였지만, 그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이듬해에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소집되었고, 대한민국 남자축구 아시안게임 3연속 우승에 성공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어 금의환향하기도 했다. 더욱 성장한 그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천의 골문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 이번 시즌 등번호 1번의 민성준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UTD기자들이 항상 성장을 갈망하는 골키퍼 민성준을 만나보았다.



## 광성중에서부터 시작된 인천과의 인연

민성준은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나 2012년부터 인천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민성준은 "성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 말에 하남 쪽으로 전학해서 지내게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당시에 중학교 진학에 대해 고민하다가,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가 광성중학교였다. 때마침 우리 초등학교 팀이랑 광성중학교가 연습 경기가 있어서, 그날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이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의지로 되게 열심히 했다. 그걸 당시 광성중 감독님이 좋게 봐주셔서 광성중학교로 입단하게 된 것 같다"고 답하며 인천과의 연을 맺게 된 배경을 말해주었다.

이렇게 광성중 3년을 지나 대건고에 진학한 민성준은, 청소년 대표팀에도 발탁되는 등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민성준은 성장의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으로 현 광성중학교 골키퍼 코치인 윤진호 코치를 언급했다. "광성중학교 3년 대건고등학교 3년 총 6년을 같은 골키퍼 코치님한테 배웠다. 지금도 광성중학교 골키퍼 코치로 계신 윤진호 코치님한테 6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코치님 밑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 그리고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2학년 때부터 경기를 많이 뛰었다. 2학년 때 3학년 경기를 뛰고 했던 게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건고를 졸업하고 인천의 우선지명을 받은 채 고려대에 진학한 민성준은, 대학 시절에도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다. 특히 민성준은 '2018 KEB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프로팀 서울 이랜드를 승부차기까지 간 끝에 승리한 '이변'을 만들어낸 주인공이기도 했다. "그 당시에 서울 이랜드에 김영광 골키퍼가 있었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롤모델로 삼았던 선수이다. 그 경기에 김영광 선수가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선수가 있는 소속팀을 상대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나를 대로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리고 대학 팀이 프로 팀을 잡는 큰 이슈에 중심이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런 마음에서 되게 간절하게 경기했던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고려대 경기 중 하나이기도 하고 정말 자신감 하나로 버텼던 것 같다"며 당시 경기를 회상했다. 대선배 롤모델 선수가 속한 팀과의 경기인 만큼 더욱 불태웠다. 다른 기억에 남는 고려대 경기에 대해서는 "2학년 때 했던 춘계대회가 있는

데, 그 대회에서도 토너먼트 치르면서 승부차기를 세 번이나 했었다. 그중에서 승부차기 두 번이나 승리하고 4강까지 갔던 대회가 기억에 남는다"고 답하며 승부차기에 엄청난 강점을 보였음을 말해주었다.

이렇게 성장해온 민성준은, 이제 어엿한 인천의 수문장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 18라운드 종료 기준 코리아컵 포함 7경기에 출전하며 본인의 시즌 최고 경기 출전 기록을 세우고 있다. 작년 5경기 출장의 기록을 앞섰다. 김동현과 이태희(각각 김천 상무, 거제시민축구단)의 군복무 공백을 이범수와 함께 확실히 메워주고 있는 모습이다. 민성준은 구단 영상 콘텐츠 피치 위에서의 통해 민성준의 이름이 마킹된 유니폼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는 말을 남겼다. "팬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경기장에서밖에 없다. 따로 내가 댓글도 잘 안 보고 커뮤니티도 잘 안 보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만의 모습을 보고 팬들의 감정을 느끼는 게 전부이긴 한데, 경기장 안에서 유니폼 걸려 있는 게 지난 시즌들보다 확실히 올해가 수가 많이 늘었다. 매 경기 많이 보인다. 그렇게 내 유니폼을 볼 때마다 가장 좋은 감사한 감정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다"며 이번 인터뷰에서 여전히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추가로 "아직 나는 보여드릴 게 많고, 가진 기량에 비해 보여드린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매 경기 고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며 이미 준비되었음을 팬들에게 어필하기도 했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일본에서의 2년 임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기까지 마냥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민성준은 2020년에 인천에 입단한 직후, J2리그의 몬테디오 야마가타로 2년간 임대를 떠났다. 코로나19의 창궐, 그리고 부상 악재가 겹치며 민성준은 일본에서의 임대 생활동안 공식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야마가타에 입단하고 첫 시즌에는 거의 1년 중에 300일은 쉬었던 것 같다. 코로나도 겹치고 부상도 겹치고 겹치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못 본 채로 그냥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오히려 더 내면적으로 단단해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 많은 재활 운동을 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도 채워나가고, 언어적인 부분도 채워나가면서 지냈다. 이렇게 지내던 1년이란 시간이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시기였다. 그 해를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오면서 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일본 생활에서의 고된 삶이 오히려 민성준의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2022시즌 리그 마지막 라운드 (38라운드) 전북현대전에서, 민성준은 꿈에 그리던 데뷔전을 치렀다. "그 해는 동현이 형과 태희 형이 너무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어서 내게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치만 사실 시즌 초반부터 욕심도 가득했었고 스스로는 준비돼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뒤에서 묵묵하게 기다렸었는데, 그렇게 마지막 라운드에서라도 기회가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었다. 그때도 나는 그 경기에서 잃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전북은 당시에 강팀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슈팅들이 날아올 거고, 내가 선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더 기본 좋게 경기를 준비

했었던 것 같다. 또 그 경기를 토대로 더욱 자신감을 얻은 채로 시즌을 마무리했던 것 같다"며 데뷔전 때의 추억을 회상했다.



##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승선, 그리고 '금메달' 쾌거

점차 실력을 인정받아오던 민성준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멤버로 최종 발탁된 것이다. 여타 쟁쟁한 실력의 골키퍼들을 제치고, 민성준은 강원의 이광연, 전북의 김정호와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 무대를 누비게 되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부담감을 이겨내고, 결승 한일전에서 2-1로 승리하며 대회 3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되었다. 민성준은 조별리그 3차전 바레인전에 출전하여 3-0으로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 민성준은 아시안게임 우승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너무너무 생생하다. 그 순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일 것 같다. 그리고 그 대회를 다시 되새기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너무 간절하게 응원했었고 기도했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든 순간이 감사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특별한 수식어보다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떠오르는 것 같다."

아시안게임 우승 후, 인천에서는 조성환 감독이 민성준에게 가장 먼저 축하 연락을 전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왔는데, 감독님이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다. 너무 축하한다고 연락을 가장 먼저 주셔서 감독님께 감사했다. 그다음으로 김이섭 코치님에게도 연락 왔고, 동현이 형과 태희 형에게도 연락이 왔는데, 많이 부러웠다"고 전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덕에 병역 면제 혜택을 안게 된 민성준이 너무나도 부러웠을 두 선수들이다.

병역 면제 혜택을 받더라도, 해당 선수들은 육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약 한 달 간 논산에 다녀온 동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물었다. 민성준이 이야기 보따리 하나를 풀어주었다. "아시안게임 멤버 선수들 중에 내가 가장 먼저 훈련소에 들어갔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동현이 형 상무 기수 선수들이 훈련소에 있던 시기였다. 부대는 달랐는데, 총 쏘러 가는 길에 동현이 형 부대랑 마주쳤다. 둘 다 군기가 잔뜩 들어가는 상태에서 막 인사를 크게 하지는 못했는데, 입 싹룩싹거리면서 인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 거기서 보니까 반가웠다."



## 더욱 든든해질 인천의 'No.1' 수문장

민성준은 동물적 감각으로 종종 슈퍼세이브를 선사한다. 지난 13라운드 대전 원정 경기에서 주세종이 골대 바로 옆으로 찬 프리킥을 막아내는 일명 '미친 선방'을 선보이기도 했다. 역시 민성준도 이를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기본적인 슈팅 방어가 가장 뚜렷한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체 능력이 좋다고 자신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신체 능

력을 활용해서 세이브를 하는 부분들이 내 가장 강점이자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인천의 네 명의 수문장 모두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이에 대해서는 "범수 형이야 모든 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험 풍부하고 베테랑 형님이다. 유성이와 유수도 뒤에서 항상 묵묵하게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고, 이 친구들도 언제 기회가 오든 충분히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4명 모두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팀 동료들의 장점을 말해주었다. 여기에 더해, 인천의 골문이 리그에서 가장 탄탄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는 비결에 대해 묻자 민성준은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만큼 우리에게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올 시즌 인천은 어느 시즌처럼 골키퍼 포지션에서의 로테이션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민성준은 이번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골키퍼 선발 명단에 자주 포함되고 있다. 출전할 때마다 변복이는 장면을 보여주며, 민성준은 이번 시즌 코리아컵 포함 총 7경기에 출전하며 지난 시즌 5경기 출전 기록을 넘겼고, 앞으로 출전 시간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민성준은 "단기적으로 출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기를 연속으로 출전하면서 장기적으로 시즌을 운영하려면, 경기를 운영하는 면에서 더욱 노련미가 생겨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한 경기는 잘 하고 한 경기는 못하는 경기가 나오지 않게 꾸준함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강점뿐만 아니라 보완점도 되짚었다.

다음으로 올 시즌 목표를 물어보았다. "몇 경기 출전 같은 목표는 정해놓지 않았다. 단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하고 싶고, 팬분들의 신뢰도 더욱 받고 싶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가진 선수라는 것을 팬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경기에 나설 때마다 안정적이고 든든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게 개인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2012년, 중학생 때부터 이어온 인천인 만큼, 민성준에게 인천의 엠블럼은 더욱 소중한 존재이다. 인터뷰 중간중간마다 팬들에 대한 사랑을 가감없이 드러낸 민성준은 "매 시즌 변함없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응원해주시는 모습이 선수들에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나도 차츰차츰 더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있으니, 매 경기 성장하는 모습도 잘 지켜봐 주시고 나 역시도 더 든든한 수문장이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할 테니 팬분들도 올 시즌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ROOKIE INTERVIEW

# 다재다능 수비수 김건희,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더 뛰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qjou.ac.kr)

프로 무대에 입성한 지 2년 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베테랑 못지않은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다. 바로 김건희가 그 주인공이다. 김건희는 입단 첫 시즌부터 프로 무대에 빠르게 녹아들며 어느새 수비 라인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시즌에도 매 경기 거듭될수록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건희를 UTD기자단이 만나봤다.



## 2년 차 수비수, 신인의 마음가짐은 그대로

김건희는 지난해 신인으로 입단 후 올해 인천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지난 시즌 대학 무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신인으로 입단했다. 신인이지만 작년에 인천이 참가한 3개 대회에 모두 출전하며 데뷔 시즌부터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인천 수비진의 미래로 여겨지며 돌아오는 시즌에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김건희는 “이제 프로 무대에 들어온 지 2년 차이이지만 마음가짐은 처음 입단했을 때와 똑같은 것 같다. 경기력적인 부분은 작년 말처럼 이번 시즌에도 경기 출전을 꾸준히 하면서 경험을 잘 쌓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프로 2년 차 소감을 말했다.

김건희는 매 경기 출전했을 때 과감한 수비와 후방에서 여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신인답지 않은 노련함이 가득 묻어난다. 프로 첫 시즌에 비해 프로 무대에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듯 보였다. 이에 대해 김건희는 “아직 경기 출전이 많은 편은 아니고 경기에 들어갔을 때도 많은 시간을 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프로 무대에 처음 왔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적응은 한 것 같지만 완벽히 적응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김건희에게 아직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건희는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경기 운영 측면에서 많은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 기량도 아직 많이 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막내 센터백, 형들 보며 무력무력 성장 중

인천은 시즌 시작 전 요니치를 영입하면서 중앙 수비 자리를 보강했다. 이미 베테랑 수비수들로 가득한 인천의 중앙 수비수들 사이에 요니치까지 합류하면서 포지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프로 2년 차 김건희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김건희는 리그 20라

운드 기준 코리아컵을 포함해 10경기 이상 출전하면서 꾸준히 조성환 감독의 선택을 받아왔다.

김건희는 “감독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경기 내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믿고 써 주시는 것 같다. 자주 출전하는 만큼 경기 중에 생기는 모든 부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이 많은 경험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건희는 팀에 있는 중앙 수비수들 중 막내다. 매번 자신보다 10살 이상 차이 나는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리그에서 선발로 출전했던 15라운드와 17라운드는 팀 내 최고참들과 3백을 구성했다. 김건희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김건희는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형들이 잡아 주시는 부분들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제가 경험이 부족한데 원하는 걸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알려주신다”고 말했다.

특히 김건희는 요니치에게 배우는 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동계 때부터 요니치의 장점을 제 걸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요니치가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조인해 주고 코치님께서도 동계훈련 때 요니치의 좋은 부분들을 비디오 미팅을 통해 알려주신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훈련을 통해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6월 초 A매치 기간 동안 창원으로 짧은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조성환 감독은 전지훈련 기간 동안 팀 전술과 함께 수비적인 부분에 공을 들였다고 이야기했었다. 김건희는 “A매치 휴식기가 있긴 했지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짧은 기간이지만 팀 전체적인 밸런스 훈련이나 움직임 훈련을 많이 했다”고 전지훈련 당시를 이야기했다.



## 수비와 공격 모두 가능, 다재다능 수비수

김건희는 지난 5월 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 막판 공격수로 투입되면서 많은 팬들의 놀라움을 일으켰다. 처음 보는 광경에 모두들 의문을 가졌지만 극장 골의 기점 역할을 해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조성환 감독은 김천 원정을 떠나기 전부터 준비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김건희는 “그 당시 처음으로 공격수를 봤는데 감독님께서 전날 미리 말씀해 주셔서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었다. 교체로 들어갔을 때 운이 좋게 득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다. 원래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뛰고 공중볼을 때내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했다”고 이야기했다.

이후에도 조성환 감독은 경기 막판 득점이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김건희를 최전방으로 올려 보냈다. 김건희는 매번 최전방이 익숙하다

는 듯이 탈압박과 정확한 헤딩 연결을 보여줬다. 공격수로 깜짝 활약을 선보인 것을 보고 팀 동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물었다. 김건희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 (신)진호 형이 공격수로 나와서 헤딩할 때 매번 상대 수비수와 거리를 두고 헤딩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라고 조언해 주셨다”고 말했다.

인천의 최근 라인업에는 김건희를 포함해 박승호, 최우진 등 입단 동기들이 함께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그만큼 서로 의지 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김건희는 모든 팀원이 서로를 의지한다고 강조했다. “팀원 모두 서로서로를 많이 의지하는 것 같다. 모두가 함께 뛰기 때문에 서로를 믿으며 경기에 임한다. 서로 팀원들을 위해 실수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다른 팀원이 실수하면 내가 만회하겠다는 생각이 가득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 팬들의 응원이 한 걸음 더 내딛게 만든다

6월이 지나면 이번 시즌의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를 맞이한다. 전반기 동안의 스스로의 경기력에 대해 김건희는 “동계 때부터 준비한 만큼 경기장에서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경기에 많이 출전해서 경험을 쌓으며 점차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후반기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건희는 작년 10월 구단 매거진 인터뷰에서 프로 첫 시즌 목표를 경기에 최대한 많이 뛰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프로 2년 차가 된 올해 목표에 대해 물었다. 김건희는 “원래 20경기 출전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였다.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후반기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팀적으로도 반등해서 시즌 초반 세웠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6월 초 인천유나이티드 축구센터로 들어가는 길목 전체에 선수들을 응원하는 현수막들이 다수 설치됐다. 선수단은 응원 현수막을 각자 SNS에 업로드해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 시즌에도 팀이 힘든 상황일 때 팬들이 축구센터에 응원 현수막을 설치해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김건희는 팬들의 이러한 응원에 대해 “힘이 정말 많이 된다. 외박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응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보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다. 볼 때마다 경기장에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힘이 나는 원동력이 된다”고 감사함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매거진을 통해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물었다. 김건희는 “항상 큰 응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최근 리그에서 승리가 많이 없었는데 이 매거진이 나갈 때에는 앞선 경기들을 꼭 지켜서 승점을 많이 가져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프로 선수들이 더 높은 자리를 향해 구슬땀을 흘릴 때, 묵묵히 뒤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뛰는 선수들이 있다. 바로 인천유나이티드의 유소년팀 선수들이다. 인천유나이티드의 U-18 팀인 인천 대건고는 '2024 K리그 주니어 U18' 전기리그 A조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팀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었다. UTD기자단은 전기리그 여정 내내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줬던 인천 대건고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획 기사를 준비했다.



## 위기를 이겨낸 상승세, 뒷심을 발휘한 인천 대건고

인천 대건고의 시즌 첫 리그 일정은 3월 9일에 펼쳐진 1라운드 FC서울 U-18 오산고등학교와의 원정 경기였다. 대건고가 후반에 터진 한준희의 고등학교 무대 데뷔골을 앞세워 승리하는 듯했으나 추가시간에 통한의 실점을 내주면서 2-2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다. 막판 집중력이 흔들렸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인천 대건고가 지닌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첫 경기였다.

이후 인천 대건고가 인천광역시협회장기 축구대회에 참가하면서 3월의 리그 일정은 4월로 연기됐다. 그 결과, 인천 대건고의 두 번째 리그 경기는 4월 6일에 펼쳐진 2라운드 서울이랜드FC U-18 원정 경기였다. 인천광역시협회장기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던 인천 대건고지만, 초반부터 득점을 몰아치며 한결 발전한 기량을 선보였다. 결국 인천 대건고는 2득점 2도움을 기록한 성희찬을 앞세워 5-1 대승을 거두었다.

한껏 기세를 끌어올린 인천 대건고의 다음 경기는 4월 13일에 펼쳐진 6라운드 충남아산FC U-18과의 홈 경기였다. 홈 개막전에서 만난 충남아산 FC U-18은 당시 리그 전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탄 팀이었고, 전반 7분 만에 선제 실점을 내주고 말았다. 인천 대건고는 포기하지 않고 후반 15분

승구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재차 실점을 내주면서 1-2로 아쉽게 패배했다.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인천 대건고는 전열을 가다듬었다. 4월 20일에 펼쳐진 3라운드 성남FC U-18 풍생고등학교와의 홈 경기에서 인천 대건고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이재환이 득점을 터뜨렸다. 이어서 손태훈까지 득점을 추가하며 일찌감치 2-0으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에 2-2 동점 상황까지 내주면서 다소 주춤했다. 그러나 경기 막판 손태훈이 또 한 번 득점에 성공하면서 인천 대건고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저력을 입증했다.

성남 풍생고에 승리를 거둔 후 인천 대건고는 연승행진을 이어갔다. 4월 27일에 열린 5라운드 천안시티FC U-18 원정 경기, 그리고 5월 4일에 열린 8라운드 제주유나이티드 U-18 원정 경기를 모두 2-0으로 잡아내면서 힘든 원정 일정을 이겨냈다. 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인천 대건고는 리그 2위를 지키고 있었다. 1위 아산과는 3점 차, 3위 서울과는 1점 차로 촘촘히 붙어있는 상황이었다. 인천 대건고가 최종전을 이긴다면, 아산과 제주의 경기 결과에 따라 1위로 올라설 수도 있었다.

인천 대건고의 전기리그 마지막 상대는 FC안양 U-18이었다. 홈에서 안양을 만난 인천 대건고는 우승을 향한 마지막 가능성을 잡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전반 17분 이재환의 득점을 시작으로 멈추지 않고 공격을 이어간 인천 대건고는 6-2 대승을 거두며 전기리그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최종 5승 1무 1패). 아산이 제주에게 승리하면서 아쉽게도 리그 우승은 무산됐지만, 최선을 다한 인천 대건고의 행보는 아름다웠다.

고학년 리그 실적도 좋았지만, 저학년 리그에서 인천 대건고가 보여준 행보는 더 인상적이었다. 6경기에서 5승 1무를 거두며 무패행진을 이어간 인천 대건고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고학년 리그에서는 아산을 상대로 유일한 패배를 기록했지만, 저학년 리그에서는 아산에 4-0 대승을 거두면서 설욕하기도 했다.

인천 대건고를 이끌고 있는 최재영 감독은 전기리그 결과에 대해 "선수들에게 리그는 토너먼트와 비교했을 때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다. 운보다는 실력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항상 강조했는데, 선수들이 매주 기록 없이 지속적인 경기력을 유지해 줘서 감독으로 정말 뿌듯하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남겼다.



## 압도적인 득점력을 발휘한 인천 대건고의 주포들

최재영 감독의 지도하에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준 인천 대건고에는 돋보이는 재능을 보여준 선수들도 많았다. 인천 대건고는 리그에서 21득점을 터뜨렸는데, 득점 분야에서 서울 오산고(22득점)에 이어 2위에 오를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력을 자랑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선수들은 바로 스트라이커 이재환과 윙어 성희찬이었다.

스트라이커 이재환(3학년)은 7경기에 나서서 6득점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주포 역할을 맡았다. 청소년 국가대표팀에 소집되는 등 이미 인천 팬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선수였고, 그 기대에 걸맞게 2024 K리그 주니어 U18 전기리그 A조 득점 1위에 오르기까지 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움직임, 결정력, 피지컬이 성장하고 있는 이재환은 인천 공격진의 뉴페이스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다.

윙어 성희찬(3학년)은 7경기에 나서서 3득점 4도움을 쌓았다. 파괴적인 돌파력과 성실한 활동량을 갖춘 성희찬은 능수능란한 드리블을 바탕으로 측면을 교란하고, 주변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줬다. 성희찬과 이재환의 콤비네이션이 살아나면서 인천 대건고는 시원한 공격력을 갖춘 팀으로 발전하였다.

이들 외에도 장태민(2학년)이 꾸준히 출전하며 중요한 공격포인트를 쌓았고, 특히 리그 최종전에 눈부신 기량을 보여줬다. 또한 강건(2학년), 임예찬(1학년)은 저학년 리그에서 무시무시한 활약을 펼치며 각각 저학년 리그 득점 1위, 2위에 올랐다. 초반에 공격수로 주로 나선던 임예찬은 최근 측면 수비수로도 자주 나서며 멀티 플레이어의 가치도 입증했다.



## 창조성과 힘을 고루 보여준 인천 대건고의 중원

날카로운 공격진의 뒤에는 콧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경기에 임한 중원 선수들이 있었다. 전기리그에서 인천의 중원을 책임진 핵심 선수로는 김현수, 손태훈을 꼽을 수 있다.

김현수(3학년)는 7경기에 나서서 2득점 2도움을 기록하며 팀에 창조성을 불어넣었다. 주장 황지성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부주장으로 팀을 이끌었던 리더이기도 하다. 뛰어난 테크닉과 넓은 시야, 날카로운 킥을 고루 지닌 김현수는 인천 대건고를 이끄는 엔진다운 활약을 이어갔다.

손태훈(3학년)은 7경기에 나서서 3득점 1도움을 기록했다. 남다른 피지컬을 지닌 손태훈은 왕성한 활동량과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중원을 휩쓸었고, 간혹 박스 안까지 침투해서 귀중한 득점을 만들기도 했다. 축구 지능도 뛰어난 편에 속하여 상황에 따라 공격, 수비의 균형을 곧잘 맞추었다.

한편, 저학년 리그에서는 신입생 양진욱(1학년)이 6경기에서 3득점 2도움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다. 심지어 코너킥으로 직접 득점을 기록하는 명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 단단한 수비로 후방을 지킨 인천의 방패들

인천 대건고는 공격력만큼 수비력도 인상적인 팀이었다. 리그 9실점을 기록한 인천 대건고는 최소실점 분야에서도 2등을 기록하며 공수 균형을 고루 잡은 팀으로 평가받았다. 쓰리백 포메이션을 주로 운영한 인천 대건고는 다양한 수비 자원을 고루 기용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인천 대건고 수비진의 중심을 잡은 선수는 우창범(3학년)이었다. 우창범은 전기리그 7경기에 모두 출전하여 수비의 리더로 활약했다. 과감한 빌드업과 적극적인 리딩을 갖춘 그는 수비진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자리 잡았다.

우창범의 옆에 서는 파트너로는 한가운(2학년), 최규빈(2학년), 한준희(1학년)가 번갈아 가며 기용됐다. 한가운은 수비수 본연의 임무를 철벽같이 수행하며 안정감을 더했고, 최규빈은 필요에 따라 전진도 수행해 주며 스토퍼로 기용되었다. 한준희는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면서 지능적인 플레이를 이어갔는데, 상황에 따라 측면이나 전방으로 올라가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발산했다.

한편, 양 측면에는 권재현(3학년)과 예승우(2학년)가 주전으로 나섰다. 권재현이 성실하게 움직이면서 균형을 맞추고 종종 날카로운 크로스를 제공했다면, 예승우는 직접적으로 공격 진영에 가담하여 팀의 파괴력을 높였다.

그리고 이들의 뒤는 골키퍼 왕민준(3학년)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부상이 겹치면서 출전 기회에 제약이 있었지만, 부상을 털고 돌아와 주전으로 나오면서 물오른 선방 감각을 보여줬다. 왕민준은 수비진과 협력하여 단단한 인천의 후방을 조직하는데 기여했다.

전기리그 성적을 바탕으로 후기리그 상위스플릿에 안착한 인천 대건고는 2024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 인천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재능들의 성장기가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





IUFC  
**BLUE MARKET**  
인천유나이티드 블루마켓 운영 안내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GATE-W7 옆 2층**

경기 시작 2시간 30분전

경기 종료 30분 운영

경기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 하프타임 매장 이용가능

온라인 블루마켓



incheonutdmarket.com

블루마켓 플래그십 스토어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6-3  
(신포 문화의 거리)



**IUFC TV**

우리가 알지 못했던  
2024시즌 인천유나이티드의  
피치 위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치 다큐멘터리 시리즈  
**피치 위에서**를 시청해보세요!

YouTube

인천유나이티드 피치 위에서 |

